

'수리수리마하수리' 영어 배우며 천수경공부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첫권 펴내



〈천수경〉 영어해설서 〈수리수리마하수리〉가 3개의 테이과 함께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시리즈 첫 번째 권. 〈천수경〉은 사찰의 모든 의식에 사용되는 한편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서병후씨는 "불법의 핵심사상을 함축한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보다 먼저 영역했다"고 말한다. 불경영어 시리즈를 출간한 서병후씨는 관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 그는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64년 '관승'으로 배우는 영어 시리즈를 시작으로 경향·중앙일보 및 보드지 등에서 연애부 기자생활을 한 국내 최초의 칼럼리스트이다. 또 89년 도이, 명상과 수행으로 불교에 심취해 불교연구에 뛰어 들었다.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사성제와 8정도를 수행생들에게 의무화 했고 심지어 태권도장에 '동양사상센터'를 설립, 미국인들을 상대로 불교강의와 수행을 본격화했다. 또 71년 서울 디스코 테크 '남바나' 공연, 미국불교 포교에 나선 송산산사의 영문실업집 (Only Don't Know) 번역 등을 통해 포교활동까지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서병후씨는 풍부한 영어실력과 불교공부를 바탕으로 〈수리수리마하수리〉를 펴냈다. 그는 이번 〈천수경〉영역을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각종 〈천수경〉 관련 서적부터 밀교경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적을 참고했다.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가운데 몸과 우주를 뜻하는 내외(內外)의 경우 밖의 만달라는 우주(cosmos), 안의 만달라는 인간(the person)이라고 영역했다. 그는 이번 영역작업에서 달라니에 대한 번역시도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언과 대다라니의 영역음을 한문경전의 전통적 발음에 따랐고, 달라니 내용도 밀교 전통에 따라 번역 해석하지 않았다. 불경공부를 통한 영어공부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리수리마하수리〉는 천수경 불경영어 강의와 독송 천수경 두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독송 및 강의식 테이과를 함께 출판해 경전을 통한 영어공부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의 미국식 발음을 들으며 경전공부와 영어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이처럼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시리즈는 경전을 통한 영어공부, 영어를 통한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신행과 포교를 겸한 영어 레슨 가이드북인 셈이다. 서씨는 "미국내 한국사찰은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 신도구성에 머물고 있는데 세계화 발길이 막힌 실정이다"며 미국내 한국불교의 현실을 걱정했다. 서씨가 세계로 가는 불경영어 시리즈를 내놓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양학자 서양불교인들과 명상과 수행을 하며 경전의 영역 필요성을 절감한 그가 신세대 신지식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불경시리즈를 기획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영어학습을 통한 경전공부로 한국불교세계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래미출판사는 금년말까지 제2권 〈반야심경〉을 출간하고 〈금강경〉 등 불교 주요경전을 계속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60원짜리 테이프 3개 포함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불교적 재산관리법 4등분으로 나누어라

대만 성운스님 '인간불교의 경험'



"불교는 돈과 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황금은 독사와도 같지만 동시에 포교와 중생구제, 수행의 양식이다. 소위 '군자가 재물을 좋아해 이를 취하되, 도를 지킨다(君子愛財 取之有道)'는 말과 같이 어떠한 재물은 중생에게 복과 이익을 줄 수 있어 많을수록 좋다." 무소유의 종교로 알려져 있는 불교, 그렇다면 불교인은 재산을 모으는 안되는 것일까. 불교인의 재산에 대한 관점과 재산을 모으는 방법, 재산의 사용방법 등을 경전을 근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간불교의 경험-재산 관리법〉이 대만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저자는 대만 불광사 주지 성운스님. 성운스님은 불교인이 재물을 모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업 상업 농업 등 각종 기술을 익히는 것을 들고, 근검 절약 너그러움 신심 보시 등을 실천하면 반드시 부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성운스님은 〈잡아잡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를 4등분으로 나눠 관리하라고 설한다. "4분의 1은 의·식·주에 사용하고, 4분의 2는 사업경영과 투자에 사용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것이 그 예다. 스님은 이밖에도 〈심지관경 열사품〉 〈대보적경〉 〈반니원경〉 등을 근거로 불법에 어긋나지 않는 재산관리법을 현대인의 재테크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미국 Weatherhill 출판사(E-mail=SDBA@ix.netcom.com) 펴냄, 값 14.95달러.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해외신간

웃는 부처



카툰 (Cartoon)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웃는 부처(Buddha Laughing)〉가 출간됐다. 미국 불교잡지 '트라이아슬'에 연재된 카툰 85점을 모은 이 책은 사람과 사물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심오한 가르침을 카툰으로 다룬 이 책은 깨끗한 눈으로 현실 문제를 깊숙이 꿰뚫어 다가설 수 있도록 부처님 지혜를 유머와 풍자로 이야기 한다. Bell Tower 출판. ISBN 060980409X

달라이 라마 이야기



남미 중견화가 피레 드레트릭 소셜 〈달라이 라마 이야기(Tales of Dalai Lama)〉가 나왔다. 달라이 라마의 성장기 조명. 그가 떠나는 구도의 길로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은 '중도'의 참 뜻을 설명해 준다. 드레트릭은 이 책에서 완벽한 결혼 현실과 환상, 이성과 감성, 역사와 신화 등 대조적인 주제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스스로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불성을 찾아내게 한다. Christopher Howell 출판. ISBN 0899240984

문화의 맞은편에 선 여성불자



여성의 눈으로 불교의 교리와 문화를 읽고 있는 책이 출간됐다. 불교 사회로 향하는 여성해방로자들의 비판을 모은 〈문화의 맞은 편에 선 여성불자(Buddhist Women Across Cultures)〉에서 저자 초모는 불교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통념을 밝히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사회가 변한 만큼 불교 여성의 지위를 재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주립대 출판. ISBN 0791441385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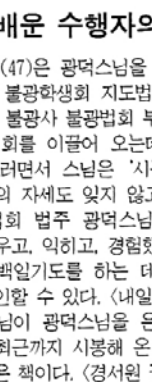
성본스님, '선의 역사와 사상' 재출간

각 사찰의 여름참선수련회를 앞두고 선의 역사와 사상에서부터 어떠한 수행방법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선서가 재출간됐다. 동국대학교 성본스님이 지은 〈선의 역사와 사상〉은 올바른 선수행이론과 실천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선불교에 대한 기본정신과 수행방법, 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선 수행을 통해 체득한 선각자들의 생생하고 활기있는 체험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권. 값 1만5천원〉



내일이면 늦으리 송암스님 지음

광덕스님 시봉하며 배운 수행자의 길 송암스님(47)은 광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불광학생회 지도부, 불광유치원 이사장, 불광사 불광법회 부주지 등 불광사·불광법회를 이끌어 오는데 앞장선 포교사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봉'이라는 수행자 본인의 자세도 잊지 않고 있다.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광덕스님이 일반화자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백일기도를 하는 데서 수도승적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이면 늦으리〉는 송암스님이 광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시봉해 온 일들을 써온 글들을 모은 책이다. 〈경서원 권. 값 8천원〉



옛그림속 금강산의 사찰들

이태호교수 '조선미술사 기행' 경재 정선을 비롯 옛 화가들이 남긴 금강산 그림 현장을 답사하고 쓴 〈조선미술사 기행 1〉이 나왔다. '금강산 천년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지난 98년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북한지역 문화유산답사기행을 하고 쓴 책이다. 〈조선미술사 기행 1〉은 '옛 화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한국 산수화의 모태, 조선 후기 금강산 그림'과 산수화의 대상으로 사암봉경과 불교유적을 화폭에 담았던 곳을 답사하는 '불교유적을 찾아서'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불교유적을 찾아서'는 신라 9세기 석탑부터 20세기 효봉스님 행적까지 약 1200년간의 불교유적사가 담겨져 있다. 저자는 "폐사지를 찾는 발길마다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다"며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마하연 등은 옛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았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보덕암과 마하연의 칠성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남아 있는 목조건물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세상 권.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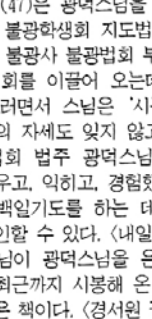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예춘
2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3	오직 모를뿐	은석준	불행자리
4	타래	보현	찬선
5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아문
6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법	신우도량
7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8	파란스님의 한국선수행기	김종명	예문서원
9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민황	정우사
10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심재용	솔

구입문의: (02)737-0695

화제의 책

내일이면 늦으리

광덕스님 시봉하며 배운 수행자의 길 송암스님(47)은 광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불광학생회 지도부, 불광유치원 이사장, 불광사 불광법회 부주지 등 불광사·불광법회를 이끌어 오는데 앞장선 포교사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봉'이라는 수행자 본인의 자세도 잊지 않고 있다.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광덕스님이 일반화자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백일기도를 하는 데서 수도승적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이면 늦으리〉는 송암스님이 광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시봉해 온 일들을 써온 글들을 모은 책이다. 〈경서원 권. 값 8천원〉



화제의 책

고승범어·경전 설화서 얻는 깨우침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고뇌에서 벗어나 편안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이 엮은 〈지혜문 행복문〉은 부처님의 핵심사상이 담긴 〈대장경〉과 우리나라 중국 인도 고승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본생경〉 〈유행경〉 〈능엄경〉 등 57가지 경전에 실린 설화를 일곱 개 엮었다. 각 설화속에는 연기사상, 팔정도 등의 가르침이 녹아 있어 심심증에도 도움이 된다. 〈부다가야 권. 값 4천4백원〉

화제의 책

불자가정 신심높이는 법회교안집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보신문 이화종 기자가 쓴 가정법회 교안집 〈가정법회〉는 가정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한다. 가정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안작성. 이 책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금주의 성구, 발원문, 등을 각 부분별로 가족구성원이 돌아가며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함부 경전을 바탕으로 한 금주의 성구와 140편의 발원문은 가정회록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운주사 권. 값 1만 원〉

주머니 속 대장경 303·선(禪) 여시아문은 '물든 바, 먼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 출간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몸음, 너는 누구냐'는 대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실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법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94쪽 /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